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92호 1판 (음력 1월 24일) 2016년 3월 2일 수요일

필리버스터 중단 오늘 선거법 처리

더민주, 진통 끝 7일만에 마쳐 … 테러방지법 원안 통과될 듯

정의당 "필리버스터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처리 시도에 맞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일 중단하기로 했다. 더민주 지도부의 결정대로 이날 중 필리버스터가 7일 만에 중단되면 2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뜻 깊은 3월 1일,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전날 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비대위 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심야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우호적인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계속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 상당수는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끌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져 필리버스터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필리버스터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선거 전체를 봐야 한다. 정점에 있을 때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고 이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내대표가 이 선거판을 책임질 것이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또 "지금 국민이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울분에 차 있긴 하지만, 결국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총선 때까지) 시간이 없다. 저쪽(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무쟁점 법안 등의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본회의만을, 공직선거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민주 강경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변수다. 때문에 이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이를 오후 6시30분에 소집한 의원총회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는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리"라며 '번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당내 강경파의 집단반발이 있을 경우 향후 새누리당과의 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2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총선 표밭 점검 - 광주 서울 ▶5면

재개발 주택조합 '잡음' 검·경 수사 '고삐' ▶6면
광주출신 소설가 한강 영미권에서 주목 ▶16면

"대한민국 만세" 삼창 1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열린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개회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등 내외빈들이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1 마라톤…금남로 달리며 남도의 봄을 깨우다

관련기사 7·18·19·20·22면

전국 3000여 명 3·1정신 잇기
문화전당~영산강 힘찬 레이스
풀코스 김수용·이선영 남녀우승

전국에서 몰려온 3000여 명의 건각들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심장부인 광주 도심을 달리며 새봄을 열어 젖혔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 51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1일 오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을 출발, 영산강변을 따라 상무시민공원까지 달리는 코스에서 열렸다.

마라톤 동호인을 비롯해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3000여 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은 자동차들이 비켜선 광주 도심을 질주하며 화합과 희망의 레이스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새봄의 청량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인 3·1 마라톤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선·임내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홍화성 동구청장 권한대행, 이흥묵 농협 광주본부장, 강남경 농협 전남본부장, 유재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4·13 총선과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도 행사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회는 개회 선언에 이어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의 대회사로 막이 올라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의 3·1 정신을 기리는 만세삼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하프코스는 오전 8시 30분 시작됐다. 이어, 민주·인권 도시의 심장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을 출발점으로 해 평소 자동차의 전유물이던 금남로를 거쳐 영산강변을 따라 승촌보~상무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명품' 풀코스 질주는 오전 8시 35분 출발 총성과 함께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환상적인 도심 마라톤 코스와 매끄러운 행사 진행을 높이 평가했다.

풀코스 우승의 영광은 김수용(40·대전)씨에게 돌아갔고, 풀코스 여자부문 우승컵은 이선영(39)씨가 차지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의당, 박지원 영입 임박

공천 배제 예외 조항 의결 … 당규 개정해 합류의 길 터줘

4월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서고 있는 박지원 의원(목포)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1일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를 받은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당규와 관련,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특검 과정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당규 개정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무소속 출마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해, 일정 정도의 거리를 뒀다. 이는 야권 통합을 위해 더민주를 탈당, 무소속 출마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아직 정치적 명분이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조만간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이 사실상 박 의원의 영입을 위해 당규까지 손보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조만간 박 의원을 만나 국민의당 합류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무소속보다는 정당의 후보로 총선에 나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박지원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 여부에는 무엇보다도 목포와 호남의 민심이 중요하다"며 "박 의원이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박 의원 영입에 성공한다면 전남(박지원)과 광주(천정배), 전북(정동영) 등 호남 벨트가 완성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호남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끝으로 15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 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광주숭일중(59회), 광주송원고(23회), 서울대학교(91학번), 네델란드 헤이그대학 연수
- 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30기)
- 육군법무관(1군사령부, 22사단, 31사단 군판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검찰실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변호사 하 재 욱 올림

▶업무개시 : 2016년 2월 22일(월)
▶개업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지산동)
▶대표전화 : 062)223-7337
팩스 : 062)223-8181
▶개업소연 : 2016. 3. 11.(금) 오후 4시부터

訃 告

제16대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셨던 金在植님(향년 93세)께서
2016년 3월 1일 08시경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 인 : 2016. 3. 3.(예정)
장 지 : 국립현충원

상 주 일 동